

작가 마크 트웨인

어느 날 마크 트웨인이 어떤 책을 빌리려고 이웃집에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웃 사람은 마크트웨인에게 유머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빌려줘야지. 얼마든지 보게나.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네.”

“그게 뭐죠?”

마크 트웨인은 책을 빌려갈 생각에 기분 좋아라 물었다. 그러자 이웃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응, 여기서 읽으라는 걸세. 책을 서재 밖으로 절대로 내보내지 않기로 했거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 사람은 마크트웨인에게 잔디 깎는 기계를 빌리러 왔다.

“마크, 잔디 깎는 기계를 좀 빌려줘.”

마크트웨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연히 빌려줘야죠. 얼마든지 쓰세요.”

고마워 참으로 친절하군.“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지?“

”네, 여기서 쓰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집 밖으로는 그걸 내보내지 않기로 했거든요.“